

김상득

서울대 강사.

이 글은 1996년 1월 제 12회 기독교문화회에서 발표되었다.

## 임신중절 : 태아의 도덕적 지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 밴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좇아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대음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값을지니라" (출21:22-24)

들어가는 말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이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다.

- (1)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 (2) 태아는 무고한 인간이다.
- (3) 임신중절은 태아를 죽인다.

따라서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

이 논증의 결론은 전제에서 타당하게 도출된다. 따라서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적어도 전제 중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전제에 해당하는 전제 (1)은 거의 모든 윤리이론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윤리 원칙이기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그만큼 증명의 부담이 크다. 전제

(3)은, 적어도 태아가 체외 생존가능성(viability)을 지니기 전에는, 현재의 의술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다. 사실 전제 (3)은 엄밀히 말해 윤리적 물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사실의 물음으로 의학이 그 참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신중절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대부분은 전제 (2)를 부인한다.

그런데 전제 (2)에는 두 가지 주장이 함축되어 있다. 하나는 태아는 인간이라는 명제요, 다른 하나는 태아는 무고하다는 명제이다. 이 둘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태아는 인간이라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임신중절은 항상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모든 살인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은 아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을 들 수 있다. 태아가 인간이라고 해도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라면 태아를 죽이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 일부 자유주의자들은 임신중절의 정당성을 옹호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극단적 자유주의자들은 태아의 인간성 자체를 부인한다. 태아를 여자의 신체에 붙어있는 하나의 혹으로 취급해 버리면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은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체의 혹을 제거하는 것은 윤리의 물음이 아니라 건강의 물음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보수주의자들은 태아는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주장을 한다. 태아의 인간성에 관한 이러한 상반되는 두 주장 중 어느 주장이 옳은가? 이는 요즈음 환경윤리와 의료윤리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도덕적 지위'(moral standing)에 관한 물음이다. 즉 누가 혹은 무엇이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도덕적 권리를 갖기 위해 어떤 대상이 가져야 할 속성은 무엇인가? 도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누구 혹은 무엇인가?

도덕적 지위가 무엇이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물음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모든 학자들은 정상적인 성인은 누구나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즉 도덕적 지위의 기준에 관해 필요충분조건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 충분조건을 제시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정상적인 성인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찾아 그것을 태아의 도덕적 지위 물음에 적

용시키고 있다. 그러면 성인들은 도덕적 지위와 관련된 어떤 특성을 공유하는가? 일부 학자들은 이성-합리성-을, 또 다른 이들은 유정성-쾌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그 속성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어느 기준을 택해도 태아는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태아의 도덕적 지위가 의심스러워져, 보수주의자들의 임신중절 반대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이런 반론을 반박하고자 보수주의자들이 제시하는 논증이 바로 잠재성 논증(potentiality argument)이다. 이 논문은 바로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잠재성 논증이 무엇이며, 그것이 임신중절의 도덕성 물음에 대해 갖는 함축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1. 잠재성 논증이란?

도덕적 지위를 정의하는 일 역시 어려운 물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용윤리학자들은 도덕적 지위를 온전한 생명권의 소유로 정의하고 있다. 즉 도덕적 지위를 지닌 모든 존재는 적어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합리성을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는 입론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정상적인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 (a) 도덕적 지위를 지닌 모든 존재는 생명권을 지닌다.
- (b) 도덕적 지위는 합리성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
- (c) 정상적인 성인은 합리성을 지닌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인은 생명권을 지닌다.

잠재성 논증을 제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여기에다 다음 주장을 덧붙인다.

(d) 합리성을 잠재적으로 소유한 모든 존재도 합리성을 실제로 소유한 존재와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d)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태아가 생명권을 지닌다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태아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경우 정상적인 성

인이 되어 합리성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증명의 부담은 보수주의자가 지게 된다. 즉 현실적인 소유와 잠재적인 소유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 보수주의자는 이 둘을 동일시 여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신중절에 반대하자면, 보수주의자는 이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난점뿐 아니라 잠재성 논증은 보수주의자가 바라는 것 이상을 보증해 주는 것 같다. 이 논증 옹호자들은 생명 보호를 태아, 배아, 수정란에까지 확대 적용시키나, 수정란을 구성하는 정자 혹은 난자에게까지 적용시키지는 않는다. 그런데 수정란과 정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작업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반대자들의 주장이다. 즉 임신중절은 수정의 결과로 생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착상된 태아를 제거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임은 성교의 자연적 결과인 수정을 방해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피임을 하지 않으면 그 정자와 난자는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수정란이 되고 산모의 자궁에 착상되어 배아,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어 합리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잠재성 논증에 따를 경우, 정자와 난자도 잠재적인 인간이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피임 역시 도덕적으로 그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잠재성 논증이 관계하는 한, 임신중절과 피임은 모두 잠재적인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그르게 된다. 따라서 수정을 도덕적 분기점으로 잡으려면, 보수주의자는 이 반론을 반박하는 적극적인 논변을 펴야한다.

우리는 피임/임신중절/유아살해를 구분하고 있다. 우리들의 상식적인 직관에 따르면 피임은 도덕적으로 허용되나, 유아살해는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물론 카톨릭에서는 인공피임조차 반대한다). 그런데 잠재성 논증은 이런 상식적 직관과 어긋나는 결론을 낳는다. 물론 이런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는, 논리적 일관성에 따라 인공피임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만큼 증명의 부담이 크며, 또한 현실성 없는 공염불에 불과한 주장이다.

## 2. 잠재적인 존재가 왜 도덕적으로 중요한가?

잠재성 논증 반대자들은 어떤 특질의 실제적 소유와 잠재적 소유를 혼동하여, 동일한 정도의 도덕적 지위를 잠재적 존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수주의자의 입장을 비판한다.<sup>1)</sup> 예를 들어, 어린이는 잠재적인 어른이나 결코 어른인 것은 아니다. 이 둘이 개념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도 분명 구분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증명의 부담은 보수주의자에게 있다. 이에 대해 보수주의자는 잠재적인 존재와 현실적인 존재가 도덕적으로 동등하다는 전략을 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보수주의자가 취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입장이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는 이 둘의 구분을 인정하면서, 잠재적인 존재를 현실적인 존재와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논변을 펴고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도덕적 행동이란 다른 존재의 능력을 존중하는 문제이다. 즉 실제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여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 롤즈(J.Rawls)도 ‘어떤 종류의 존재가 정의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가?’의 물음에 답하면서, 도덕적 인격이 될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답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 인격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능력에 관한 것이지 그 실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도덕적 인격이 될 잠재성이 곧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충분조건이라는 것이다.<sup>2)</sup> 우리는 도덕적 지위의 기준이 되는 특질을 지닐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잠재적인 존재도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 둘째, 현재의 능력은 미래의 현실태이고, 또 도덕적 행동이란 그 결과를 고려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현실태뿐만 아니라 미래의 현실태, 즉 잠재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미래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결과론적인 이유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배후에는 서로 다른 두 도덕 이론이 숨겨져 있다. 첫

1) Buckle (1990), pp.92-93

2) Rawls(1971), p.505

번째 이유는, 그 자체로 존중할 가치가 있는 존재에로 발달할 능력 혹은 힘을 지닌 존재는 그것이 발달하여 될 나중의 존재와 동일한 존재라는 이유로, 잠재적인 존재도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본다. 이는 잠재적인 존재와 현실적인 존재의 자아 동일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에 두번째 이유는 미래의 결과를 도덕적으로 중요하게 여겨, 어떤 (좋은) 결과를 산출할 잠재성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두 이유는 서로 다른 종류의 잠재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구별되는 두 도덕이론이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이 사용하고 있는 잠재성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해명되어야, 잠재성 논증의 의미가 분명해질 것이다.

사실 잠재성 논증을 펴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잠재성 개념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다. 잠재성 개념을 단순히 가능성의 의미로 사용하는 철학자들이 많다. 한 예로 해리스(J.Harris)는 "수정된 난세포가 잠재적인 인간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착상과 같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자연유산과 같은)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난세포가 결국 인간 존재가 된다고 말하는 바나 다름없다"라고 말한다.<sup>1)</sup> 물론 잠재성 개념 속에는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다. 즉 가능성은 잠재성의 필요조건이다.<sup>2)</sup> 이때의 가능성 개념은 논리적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혹은 생물학적 의미의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정해도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예를 들어, 도토리는 잠재적인 도토리 나무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식량이기도 하다. 태아도 잠재적인 인간일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실험대상이요, 심지어는 잠재적인 개의 밥일 수도 있다. 모든 존재는 이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많은 잠재성을 지니기에, 특정 잠재성을 선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선별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서로 다른 여러 결과들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잠재성 논증은 결과론적 논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잠재성은 이차적인 의미밖에 없어진다. 따라서 도덕적 논의에서는 물리학적·생물학적 가능성이라는 의미의 광의의 잠재성 개념은

1) Harris(1983), p.223

2) Singer & Dawson(1988), p.91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3. 될 잠재성과 산출할 잠재성

이 보다 협의의 잠재성 개념이 필요하다. 어떤 존재의 잠재성은 단순한 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달할 혹은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힘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벡클(S.Buckle)은 협의의 잠재성 개념으로 ‘될 잠재성’(the potential to become)과 ‘산출할 잠재성’(the potential to produce)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sup>1)</sup> 전자의 잠재성은 발달하고 있는 실재가 소유한 힘이다. 그래서 이는 발달하는 잠재성(developmental potential)이라고 불리어 지기도 한다. 될 잠재성을 현실화하는 과정은 어떤 형태의 개체 동일성을 필요로 한다. 즉 실재가 그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탕이 되는 토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개체 동일성이다. 흔히 말하는 ‘X는 잠재적인 Y이다’라는 표현 속에는 개체 동일성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존되어야 할 동일성은 인격적인 동일성일 필요가 없으며, 단지 물리적 동일성과 수적인 동일성만으로도 충분하다.<sup>2)</sup> 잠재적인 존재와 현실적인 존재는 그 발달의 단계는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단일의 실재이라는 점에서 동일성이 유지된다.

반면에 ‘산출할 잠재성’은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토리란 잠재적인 식량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도토리가 식량이 될 가능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이해한다. ‘산출할 잠재성’을 지닌 존재는 그것이 산출하는 존재와 자아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것을 결과하는 힘만 지니면 된다. 이는 물리적 가능성을 좀 더 구체화한 개념이다. (물론 ‘될 잠재성’을 ‘산출할 잠재성’의 특수한 한 예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특수한 한 예로 볼 수 있느냐의 물음은 중요하지 않다.)

결국, 첫 번째 이유를 주장하는 자들은 ‘될 잠재성’ 개념을 사용하여, 개체의 능력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두 번째 이유를 주장하는 자들

1) Buckle(1990), pp.93-96

2) Parfit(1984), 10장 참조

은 '산출할 잠재성' 개념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존재가 장차 산출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는 '될 잠재성'을 지닌 개별적인 존재를 도덕적으로 존중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개체의 능력 존중'(respect for capacities of individuals) 논증이라 부를 수 있다. 후자는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잠재적인 존재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결과론적'(consequentialist) 논증이라 부를 수 있다.<sup>1)</sup>

서로 다른 의미의 잠재성 개념을 사용하는 이 두 논증은, 잠재성 논증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두 번째 반론을 반박하는 데 어떤 이점이 있는가? 자유주의자는 수정되는 특성의 난자와 정자를 밝힐 수 있다면, 이 둘의 결합도 수정된 난세포와 동일한 잠재성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즉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둘도 수정된 난세포와 마찬가지로 인간 존재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동일한 잠재성을 지닌다.

결과가 관계하는 한 이 비판은 적절하다. 즉 결과론적 논증에서는 수정된 난세포와 이를 형성하는 정자와 난자 쌍 사이에는 중요한 도덕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자와 난자를 묶어서 생각하면, 비록 수정이 될 때까지는 그 잠재성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자와 난자는 인간 존재를 산출할 잠재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수정된 난세포와 이들 사이에는 도덕적 지위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된다. 그러면 이 논증은 특성의 정자와 난자 쌍의 결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혹은 결합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이 논증은 단지 파생적으로만 산출할 잠재성에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도덕적 가치는 현재의 잠재성이 아니라 미래의 현실태에 놓여 있다. 즉 현재의 잠재성은 단지 가능한 미래 인간 존재의 도덕적 가치에 의해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논증에서는 어떤 존재가 실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산출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진다. 그 결과가 실체적인 존재에 의해 얻어지든지 아니면 단지 잠재적인 실재에 의해 얻어지든지 간에 그 결과가 좋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수정된 난세포와 정자는 그 산출하는 결과가

1) Buckle (1990), pp.96-104



어떠하나에 따라 그 도덕적 가치가 달라진다. 즉 여기서는 피임은 허용되고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앞에서 고찰한 단순한 가능성으로서의 잠재성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결과론적 논증은 보수주의자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산출할 잠재성' 개념은 보수주의적 입장을 옹호하는 잠재성 논증에 부적합하다.

그러나 '개체의 능력 존중' 논증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이 논증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를 존중한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는 이런 존중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될 잠재성'을 사용하는 이 논증은 개체의 동일성 보존을 필수요건으로 요구하는데, 정자와 난자에는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둘은 인간 존재를 낳는데 도움이 되는 잠재성은 지니나, 인간 존재가 될 잠재성은 지니지 않는다. 수정된 난세포와 그것의 현실태 사이에는 동일성이 보존되나, 정자와 난자 쌍과 그것의 현실태 사이에는 동일성이 보존되지 않는다. 염소나 소금의 원자가 소금이라 할 수 없듯이 정자와 난자를 인간이라 부를 수는 없다. 물리적 대상의 시간적·공간적 인과 연쇄라는 차원에서 보면, 수정란이 바로 인간 존재의 출발점이 된다.<sup>1)</sup>

정자와 난자는 수정 전에는 분명 이것들이 나온 두 사람에게 속한다. 그러나 임신이 되면 어느 한 부모와 동일시할 수 없는 새로운 세포가 존재하게 된다. 수정된 난세포는 두 근원으로부터 얻어진다. 유전학적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주듯이, 수정된 난세포의 단일성은 그로부터 발달한 단일성과 연속적이다. 반면에 정자와 난자의 이원성은 두 부모의 이원성과 연속적이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올바른 구획은 임신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별적 존재는 임신에서 시작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배아는 살아있는 인간적인 개별 인간이다.<sup>2)</sup>

따라서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논변으로 이용되는 잠재성 논증에는 자아

1) Wertheimer(1971), p.109

2) Grisez(1970), p.274

동일성의 연속성이 함축되어 있다.” 즉 보수주의자는 개체의 능력 논증을 채택하게 되면, 자유주의자의 반박을 물리칠 수 있다.

이제까지 필자는 단지 태아와 인간 존재 사이에는 자아 동일성이 전제된다는 점을 ‘될 잠재성’ 개념을 이용하고 있는 ‘개체의 능력 존중’ 논증을 통해서 밝혔다. 그러나 상식인들은 여전히 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수정된 난세포나 태아는 분명 현실적인 성인과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자아 동일성이 유지되는가? 즉 인간 존재가 될 잠재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정된 난세포가 발달 과정의 다른 끝에 있는 인간 존재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4. 수정 논증과 분절 논증

‘될 잠재성’ 개념을 사용하는 보수주의자는 개별적 동일성이 수정 이후부터 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의 생물학은 이를 의문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이 생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의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자아 동일성 이론은 <수정란-배아-태아-유아-어린이-청년-성인> 사이에 두 가지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는 유전적 연속성이며, 다른 하나는 수적인 연속성이다. 먼저 수정에서 이 두 연속성이 시작한다는 수정 논증부터 살펴보자. 수정 논증은 크게 유전적 논증(the genetic argument), 연속성 논증(the discontinuity-continuity argument), 개별성 논증(the individuality argument)으로 나누어진다.<sup>3)</sup>

유전적 논증은 ‘유전학상 인간’인 실재가 만들어지는 것이 수정이듯이, 도덕적 지위가 얻어지는 것도 수정이라고 강조한다. 수정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인간 유전자형(genotype)의 형성이다.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라는 인간 종의 새로운 유전자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수정 순간이며, 그 이후의 어느 발달 단계에서도 의미 있는 유전자 변화는 일어나

1) Engelhardt(1974), pp.324-325

2) Kuse & Singer(1990), p.66

3) Dawson(1990a), pp.44-49

지 않는다. 생물학적으로 이 논증은 두 가지 물음을 야기한다. 첫째, 유전학적인 인간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둘째, 의미 있는 유전적 변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물음에 대해 유전적 논증 주장자들은 수정을 기점으로 하여 유기체의 게놈(genome) 혹은 유전조직(genetic make-up)은 3가지 차원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첫째는 염색체(chromosome)란 일반적 차원에서, 인간의 최소 조건은 46개의 염색체 존재이다(이중 23개는 난세포에 의해서, 23개는 정자에 의해서 구성된다). 이 염색체들은 받아들여진 핵형 배열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46개 수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원인 유전자(gene) 자체의 차원에서, 인간 유전자가 중요하게 된다. 세 번째 유전자의 분자핵 구조(molecular structure of gene) 차원에서 이들은 인간 유전자의 DNA 이중나선구조를 강조한다. 수정된 난세포는 그것이 발달한 현실태인 아이나 성인과 이 3차원에서 동일하다는 것이 보수주의자의 주장이다. 수정된 난세포는 수정되기 전의 난자나 정자와 유전적으로 연속적이지 않다는 의미에서, 유전학적으로 새로운 생명이다.

유전적 논증의 두 번째 부분은 수정을 도덕적 지위 획득의 분기점으로 강조한다. 이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의미 있는'이란 용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수정 후에도 유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는데, 왜 이들 변화는 의미 없는가? 극단적인 유전적 변화는 적혈구와 눈의 수정체 세포가 분화되는 동안 일어난다. 마지막 차별화될 때, 이런 세포들은 더 이상 핵유전물질(nuclear genetic material)을 지니지 않고, 분화하는 동안 유전적 내용을 두배로 만드는 세포의 빈도수는 낮아진다. 그래서 태어난 인간은 여러 군의 세포들로 구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중 어떤 것은 수정 이후에도 일어난다. 또한 자발적인 돌연변이(spontaneous mutation)의 결과로도 유전적 변화는 일어난다. 이런 임의적인 변화의 의미는 DNA 변화, 그 변화 정도 및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종에 따라 다르지만, 돌연변이는 DNA 복제 당 백만분지 1의 비율로 일어난다. 수정 이후의 이런 유전적 변화는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단지 질

적인 변화로 ‘하나의 주제에서 일어나는 변화’(variation on a theme)에 지나지 않는다고 유전적 논증 옹호자들은 주장한다.<sup>1)</sup> 이런 유전적 변화는 출생한 유아나 성인의 경우에도 일어나는 변화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 붕괴사고로 인해 유전인자가 변형되어,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잠재성이 상실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잠재성의 실현이 좌절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2)</sup>

연속성 논증의 지지자들은 수정 이후 사건들을 발전적인 변화의 연속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어느 한 단계를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연속성과는 대조적으로, 수정은 발달에 있어서 철저한 불연속 내지 변형이다. 수정시 단일의 수정란을 형성하는 두 배우자의 결합은 인간 실체가 존재하기 시작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구분 가능한 유일한 단계이다. 수정되기 전에는 정자와 난자 두 실체가 존재하였으나, 이제는 독특한 새로운 유전정보를 지닌 하나의 새로운 실체가 존재한다. 다른 사정이 같다면, 이 수정란은 수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한 유전정보를 지닌 배아, 태아, 아기를 거쳐 성인으로 발달한다.

개별성 논증 지지자는 수정을 출발점으로 개별적인 한 인간이 시작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 존재 일반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의 물음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 인간 존재-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언제 시작되는가

1) 수정 이후에도 출생이전 유전자 구조(genetic make-up)를 변경시키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변화들은 염색체의 비분열, 즉 염색체가 세포 분열하는 동안 적절히 분열하지 않는 결과로 발생한다. 수정란의 1차분열 기간 동안의 염색체 비분열의 결과는 모자이크 유기체, 즉 서로 다른 두 세포 라인으로 구성된 유기체가 발생한다. 이 두 라인은 이것이 발생한 원래의 수정란과 유전학적으로 서로 다르다. 후기 발달 단계에서 비분열이 발생하면, 3개의 서로 다른 세포 라인을 지닌 개체가 형성된다. 이 라인들 역시 그것이 발생한 수정란과는 유전학적으로 다르다. 특히 표준적인 염색체 수에서 벗어난 유전자형-X 염색체가 3배인 여아(trople-x female), 다운 신드롬(Down's syndrome), 터너 신드롬 등-은 모자이크형태(수정 후의 염색체 비분열)나 혹은 순수한 형태(수정 전 양부모 중 어느 한쪽 배우자 발생시에 비분열이 발생하여 생기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유전적변화는 수정 후 염색체 전체에 있어서 손실 혹은 이득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표현형, 유전자형, 태중생명체의 발달 등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미있는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bid.*, pp.46-47

2) Buckle(1990), p.106

의 물음에 대해, 이 논증 옹호자는 수정을 강조한다. 연속성 논증은 <수정란-배아-태아-유아-어린이-청년-성인>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을 강조하여, 하나의 불연속점을 발견할 수 없는 수적인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이라면, 이는 하나의 개체로서의 소크라테스가 언제 존재하기 시작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수정이라고 말한다.<sup>1)</sup> 수적인 연속성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한 개체의 동일성 물음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연속성 논증과 개별성 논증은 최근 도전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1 난세포 + 1정자 = 1수정란 = 1아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아이의 형성에 두 수정란에 관여하기도 하고 1수정란이 두 아이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학은 보여준다. 이조직 공생체인 키메라(chimera)가 전자의 단적인 예이며, 후자의 예로 우리는 일란성 쌍둥이(identical twins)를 들 수 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을 하여 두 개의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경우이다. 키메라는 독립적인 수정의 결과로 발생한 둘 이상의 수정란이 융합하여 단일의 태중생명체를 발달시키는 경우이다.<sup>2)</sup>

그래서 수정 불가능한 개별성이 나타나는 시점은 수정이 아니라 분열이 끝나는 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램지(P.Ramsy)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발달하는 세포 영역의 분절은 대체로 착상 때, 즉 배란 후 약 7,8일 경에 일어난다"<sup>3)</sup> 라고 말하고, 브로디(B.Brody)는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배아세포를 가로지르는 원시적인 선(primitive streak)은 두 쌍둥이의 분리를 표시한다. 이는 수정 후 6-7일 경에 일어난다"<sup>4)</sup> 고 한다. 그러나 생물학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쌍둥이화 과정은 수정 후 14일 이전에는 어느 때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sup>5)</sup> 그래서 출산 생물학자 맥라렌(A.McLaren)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sup>6)</sup>

1) Quinn(1984), p.27

2) 이에는 분리되어 두 실재를 형성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쌍둥이(흔히 삼쌍둥이 Siamese twins로 알려져 있다)와 하나의 태아가 다른 태아 속으로 들어간 경우인 fetus-in-fetus가 있다. Dawson(1990b), pp.57-58 참조하라.

3) Ramsey(1970), pp.65-66

4) Brody(1978), p.230

수정 후 2주간은 본질적으로 배아 후기 발달의 준비기간이다. 수정된 난세포는 처음 며칠 동안 하루에 한두 번 분열을 하여 세포 덩어리를 형성하여, 그 다음 주에 여자 자궁 벽으로 기어들어 간다. 이 착상 기간동안 대부분의 세포들은 미래 배아의 보호 및 영양과 관련된 여러 기능을 점차 떠맡게 된다. 결국 이 세포들 혹은 한번 더 분열한 세포들이 배아를 에워싸고 있는 태반을 비롯한 여러 조직들-음모막, 이차 난항낭, 원시적인 중배엽, 양막, 요낭 등-을 형성하게 된다. 착상 기간 마지막에도 이런 생명체에 끼여들지 못한 세포들이 잔존한다. 배아 자체가 궁극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장소를 표시하면서 소위 임신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그룹들의 세포에서이다.

한마디로 수정된 난세포가 14일 이후의 진정한 배아와 동일한 존재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져 24시간만에 완성된 수정된 난세포는 며칠 동안 하루에 한두 번씩 분화과정을 겪는데, 2, 4, 8, 16세포로 발달한다. 이 과정에서 수정 후 첫 단계에서 발달한 여러 세포들이 다양한 기능을 나타내게 되고, 그 중 하나가 자궁벽에 착상하여 발달하여 배아가 된다. 착상은 대체로 수정 후 7일 경 시작되어 14일 경에 완성된다. 이런 배아는 수정된 난세포로부터 나오나, 그와 동일한 실재는 아니다. 수정된 난세포는 참된 배아를 산출할 잠재성은 지니나, 배아가 될 잠재성은 지니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될 잠재성 이기에, 배아가 형성되기 이전 단계의 수정란은 개별적 자기동일성의 출발점으로 볼 수 없다.

수정란 세포들은 '전적으로 잠재적'(totipotent)이다. 이런 세포들은 수정

5) 쌍태아는 인간에게 흔하지 않으나, 모든 출생아의 1/89의 빈도로 출현한다. 쌍태아의 70-75%는 이란성 쌍태아이고 나머지는 일란성 쌍태아이다. 이란성 쌍태아는 거의 동시에 배출된 두 난자가 다른 두 정자에 의해 수정되어 형성된다. 반면에 일란성 쌍태아는 발생기에 하나의 수정란이 이분되어 생긴다. 그 시기는 수정란이 2 세포가 되는 때에 일어나는 경우가 약 30%이고, 약 70%는 수정 후 3일경 포낭기 초에 이루어 진다. 드물게는(약 4%) 원시선 출현 직전의 이층배자반에서 이분이 일어나 발생한다. 신태선.박영우(1987), pp.209-213

6) McLaren(1986), p.49

논증 주장과는 달리, 하나 이상의 개체가 될 잠재성을 지닌다. 8개 세포단계까지 각각의 이전배아 세포들은 난세포 외막에 의해 묶여진 구별되는 개별 세포들의 느슨한 집합으로, 이 세포들은 각각 태아 혹은 아기가 될 잠재성을 지닌다. 즉 4개 세포의 경우, 이들 각각이 배아가 될 잠재성을 지니며, 이것이 페트리 접시에서 한번 더 난할하면 8개 세포가 배아가 될 잠재성을 각각 지니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수정란을 분열시켜, 그 중 하나를 불임여성의 자궁에 이식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1)</sup> 소위 인간 복제(cloning) 의술이 개발되면, 수정란과 착상된 배아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수정란이 8개 세포로 발달하기까지는 8개 세포 모두가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닌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자면, 착상이 끝나는 14일 경에 개별적 자아 동일성이 확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잠재적 인간의 출발점으로 수정이 아니라 착상 후로 잡는 또다른 이유는 임신의 확인이다. 여자 자신이 임신하였는지도 모르는 수정란에 대해,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잠재적인 인간이 이미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현대의학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존재에까지 생명권을 확장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나는 물음은 형이상학적인 물음이지만, 도덕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련되는 한, 그 존재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존재에 대해 생명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도덕적 지위의 소유는 생물학적인 본래적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할지라도, 그 존재 확인이라는 사회적인 요소도 최소한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현대의학에 의하면 임신의 진단은 3주경에 가능하다. 월경의 중지는 임신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첫 번째 단서인데, 임신이 되었다면, 이는 수정 후 약 3주경에 해당된다. 즉 수정란 발생 3주경에는 영양막에서 만들어져 산모의 소변으로 배출되는 용모막성 성선자극호르몬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임신을 진단할 수 있다. 어떤 검사는 월경을 그른지 12일만에 임신이 확인되기도 하나, 40일 경이 되어야 임신 여부 진단이 정확하다. 발생

1) 시사저널 212호, pp.82-83

초에는 임신을 나타내는 절대적인 징후란 없다. 따라서 착상이 2주말 경에 완성되므로, 이 때를 잠재적인 인간의 존재로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 맺는 말

태아의 존재론적 지위 물음에 대해 성경의 구체적인 언급을 찾아보기란 어렵다. 성경 곳곳에는 ‘태중의 아기가 뛰노는 것’(눅1:41, 세례 요한), ‘모태에서 태어나지 말았으며’(렘20:17, 욥3:16) 또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으니’(시139:13) 등의 구절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언급들은 태아와 그것이 발달한 인간 존재 사이에 자아 동일성이 성립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자아 동일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 자아 동일성을 창세기의 인간 창조에서의 ‘하나님 형상’으로 혹은 영혼의 유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혼 유입이나 ‘하나님의 형상’ 개념은 신학적 혹은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또 다시 해석의 어려움을 낳는다. 그래서 필자는 성인은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전제하고, 태아는 이런 존재가 될 잠재성을 지니기에 성인과 동등한 생명권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존재가 도덕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수정 논증을 통해 자아 동일성은 수정된 난세포의 착상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 혹은 ‘영혼’이 어느 시점에서 얻어지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다. 물론 태중이란 말이 나오지만, 이 역시 막연한 규정이다. 임신은 약 9개월 동안 진행되는 데, 세례 요한이 복 중에 뛰어노는 기사는 상당히 발달한 태아-임신 후 6개월-에 해당된다. 그리고 창세기의 인간 창조를 적용시키면, 태중의 시기는 임신 중기 이후로 잡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비로소 ‘아담’이 탄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중’의 시점은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필자는 개별적 자아 동일성이 시작되는 착상을 그 지점으로 제안하였다.

필자가 착상을 자아 동일성의 시작으로 보는 데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첫째로 수정을 도덕적 지위 획득의 문지방으로 삼게 되면, 피임약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현재 사용되는 일부의 피임약-RU-486, 오브랄(Ovral),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은 수정된 난세포가 여자의 자궁 벽에 착상되는 것을 방해한다. 수정란이 '인간 존재'라면 이런 피임약의 사용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된다. 그러나 착상을 인간의 문지방으로 보게 되면, 이런 피임약의 사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도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임신중절이 정당화된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생명체는 어떻게 해서 생성되었느냐의 물음에 의해 그 도덕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잉태된 생명체는 그 육신의 부모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생명권을 지녀,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에도 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착상 이후를 인간 존재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이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을 당한 경우, 즉시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약을 복용하여 태아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을 인간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이런 조치조차 불가능하므로, 잉태된 모든 생명은 출산해야 한다.

셋째, 의학이 발달하여 배아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배아실험의 오용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윤리학자와 종교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지만, 현재 배아 실험이 이루어져 태아 질병 치유에 상당한 발전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수많은 불임여성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고 있다. 배아를 인간 존재로 인정할 경우, '인간은 목적적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는 도덕원리를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런 실험을 윤리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필자의 입장에서는, 배아실험, 시험관아기, 대리모, 체외수정, 복제 인간 등과 같은 의술은 윤리적으로 열린 물음으로 남게 된다.

태아를 인간 존재로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임신중절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산모의 도덕적 책임, 태의 무고성 유무, 산모의 생명과 태아 생명의 충돌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성경적 입장이 해명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어려운 물음이다. 그러나 태아의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증명의 부담은 자유주의자에게 넘

어가게 된다.

참고문헌

- 시사저널 212호(서울:국제언론문화사, 1993.11.18)
- 신태선, 박영우(1987), 인체발생학(서울:아카데미서적)
- Brody, B.(1978), "On the Humanity of the Fetus", 여기서 는 Dawson(1990b)에서 재인용
- Buckle, S.(1990), "Arguing from Potential", in Singer & others(1990), pp.90-108
- Dawson, D.(1990a), "Fertilization and Moral Status: A Scientific Perspective", in Singer & others(1990), pp.43-52
- Dawson, D.(1990b), "Segmentation and Moral Status: A Scientific Perspective", in Singer & others(1990), pp.53-64
- Engelhardt, H.T.(1974), "The Ontology of Abortion", in *Ethics* 84(1974), pp.318-334
- Grisez, G.G.(1970), Abortion: The Myths, the Realities and the Arguments, Gerber, R.J., "Abortion: Parameters for decision", in *Ethics* 82, no.2(1972) 에서 재인용
- Harris, J.(1983), "In vitro Fertilization: the Ethical Issues", in *Philosophical Quarterly* 33(1983), pp.217-237
- Kuse, H. & Singer, P.(1990) "Individuals, Humans and Persons: The Issue of Moral Status", in Singer & others(1990), pp.65-75
- McLaren, A.(1986), "Why Study Early Human Development?", Buckle(1990)에서 재인용
- Parfit, D.(1984), Reasons and Persons(Oxford: Clarendon Press)
- Quinn, W.(1984), "Abortion: Identity and Loss", i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3(1984), pp.24-54
- Ramsy, P.(1970), "Points in Deciding Abortion", 여기서 는 Brody, B.(1975),

- 여기서는 Abortion and the Sanctity of Human Life: A Philosophical View (Massachusetts: The MIT Press)에서 재인용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Singer, P. & Dawson, K. (1988), "IVF Technology and the Argument for Potential", in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7(1988), pp.87-104
- Singer, P. & others (1990), (ed) Embryo Experiment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rtheimer, R. (1971), "Understand the Abortion Argument", 여기서는 황경식 외 (1983), (옮김), 사회윤리의 제문제 (서울: 서광사), pp.101-119